

올스타 허경민 “이번엔 WBC 몸만들기”

(두산)

최다 수비이닝에 생애 첫 올스타 호투 WBC 대표팀에 뽑혀 새 목표 정조준

“올해 목표는 모두 이뤘습니다. 그런 데 부담감은 늘었네요.”

두산 주전 3루수 허경민(26)은 올 시즌을 앞두고 뚜렷한 목표 하나를 세웠다. 전체 야수들 가운데 최다 수비이닝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단순히 경기에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라운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목표였다. 한 시즌이 흘러 꿈은 현실이 됐다. 경쟁한 야수들을 모두 제치고 KBO 리그 최다인 1206.1이닝을 기록한 것이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선수는 NC 나성범(27), 한 명뿐이었다. 나성범은 외야수라는 점에서 내야수 허경민의 수비이닝 숫자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목표를 향해 달린 많은 선물이 뒤따랐다. 생애 첫 올스타 선정과 더불어 전 경기 출장, 2017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발탁이라는 커다란 선물도 따라가 허경민의 품에 안겼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에도 주전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매년 열매였다.

긴 시즌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허경민은 “시즌 전에 세웠던 목표들

이뤄서 만족스럽다”며 “최다 수비이닝을 기록한 데 이어 내년 WBC 대표로도 선발됐다.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싶다”고 밝게 웃었다.

그러나 내년 시즌을 앞두고 걱정도 생겼다. 같은 포지션의 선배인 이원석(30)이 FA 자격으로 삼성행을 택한 것이다. 강력한 경쟁자임과 동시에 오랜 기간 동료애를 나눈 선배의 이적, 허경민은 “내가 두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원석이행이 정말 많이 챙겨줬다.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간 정이 들어 너무나 아쉽다”며 허전함을 표했다. 이어 “행이 없으니 팀 내 주전으로서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감이 늘었다”며 달라진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

고민은 하나 더 있다. 허경민은 “선수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 경쟁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선배가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러한 걱정을 뒤로 한 채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며 연말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후엔 WBC를 대비해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돌입한다.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 백업에 그쳤던 만큼 이번 대회에선 더 많은 것을 보여줄겠다는 목표가 확고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두산 허경민은 올 시즌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뤘다. 최다 수비이닝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전 경기 출장, 첫 올스타 선정, 2017WBC 대표팀 발탁까지 선물보따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내년 시즌을 앞두고 부담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스포츠조선DB

두산, 야수진 전력구상 끝냈다

이원석·고영민 등 전력외 새판 짜기 성공적인 세대교체로 내외야 든든

두산이 야수진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전력 외 선수들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필수인원으로 내년 시즌에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두산에선 이달 들어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3명의 타자들이 하나둘 짐을 썼다. 21일 프리에이전트(FA) 내야수 이원석(30)이 삼성으로 이적한데 이어 바로 다음날에는 프랜차이즈 스타 홍성흔(39)이 전적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두산은 내야수 고영민(32)에게 전력 제외를 통보했다. 내년 시즌에 함께 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들 모두 한때 두산을 대표했던 타자들이었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홍성흔은 10년 넘게 팀을 상징했던 레전드였고, 고영민 역시 특유의 빠른 발과 수비범위로 ‘화수분 야구’의 선수를 차지했던 스타플레이어였다. 이원석은 앞선 두 명과 달리 타 팀에서 두산으로 넘어온 케이스지만 2009년 이적 후 건실하게 3루를 책임졌다. 그러나 이들은 내년 전력에서 모두 배제됐다.

이 같은 대폭 개각 뒤에 남은 선수들 위주로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김태형 감독의 의중이 담겨있다. 두산은 이미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마친 상태다. 내야는 허경민과 김재호, 오재원, 오재일 등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선수들로 진용을 짜놓았다. 외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건우와 김재환, 민병현은 KBO 리그에서 가장 젊고 빠른 외야진을 구성하고 있다. 양의지~박세혁~최재훈으로 이어지는 포수진도 마찬가지다.

김 감독의 운영 스타일도 영항을 미쳤다. 두산은 주전 못지않게 탄탄한 백업 야수진을 보유한 팀이지만, 김 감독은 시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주전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했다. 점수차가 벌어진 경기 막판에도 주전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경우는 현저히 적었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시리즈(KS)에서도 이어졌다. 두산은 16명의 야수들 가운데 단 12명만을 투입해 KS 우승에 도달했다. 당장 팀에 보탬이 될 선수들만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었다. 상대 NC가 17명의 야수들을 모두 활용한 점과는 대비를 이뤘다.

야수진 새판을 짜는 데 있어 20대 위주의 백업진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다. 최주환과 국해성, 류지혁, 정진호 등 20대 중후반의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베테랑들이 치고 들어올 자리가 마땅치 않다.

김 감독은 23일 팀의 마무리훈련이 한창인 일본 미야자키로 향했다. 전력에 변화가 생긴 만큼 선수들을 직접 보고 내년 청사진을 미리 펼쳐보겠다는 계획이다. 새판 짜기는 이미 시작됐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롯데, 12월 3일 소외계층 돕기 행사

롯데 선수단이 연고지인 부산지역에서 소외계층 돕기 행사를 실시한다. 롯데 선수단 상호회(회장 강민호)는 다음달 3일 부산 시내에 위치한 음식점 5곳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선수들은 각자 배치된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등 손님 응대에 나

선다. 또 사인볼과 유니폼 등의 기념품을 현장에서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연말 소외계층 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에는 롯데 주장 강민호를 비롯해 손아섭과 김민호, 박세웅, 정대현 등 대다수의 선수들이 직접 참여한다.

김경문 감독 “박민우, 정근우 이을 국가대표 2루수”

레그리 버리자 삼진 줄고 타율 상승 PS 실책 트라우마도 실력으로 극복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2015시즌이 끝날 무렵 NC 김경문 감독은 주전 2루수로 발돋움한 박민우(23)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민우도 김 감독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2016시즌을 준비했다. 가장 큰 변화는 타격폼이었다. 1번타자로서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 발을 들어올리는 레그킥을 버렸다. 변화는 성공적이었다. 올 시즌 타율이 0.343으로 수직상승했고, 3홈런·55타점을 올리며



박민우

커리어하이를 기록했다. 삼진수가 지난해 108개에서 70개로 준게 가장 고무적이었다. “리드오프는 무조건 삼진을 당하면 안 된다”는 한화 이용규(31)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긴 덕분이었다. 자연스럽게 출루율도 지난해 0.399에서 올해 0.420으로 상승했다.

박민우의 성장은 올 포스트시즌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그는 2014년, 2015년 가을야구에서 빠이픈 실책을 했다. 큰 경기

에서 나온 결정적인 실책은 상흔을 남긴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훈련했던 수비인데도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박민우도 LG와의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수비에 대한 압박감을 할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했고, 실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PO뿐 아니라 부담감이 커지는 한국시리즈에서도 센스 넘치는 호수비를 선보이며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흐뭇하게 바라본 이가 김 감독이었다. 김 감독은 “감독을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선수가 성장한 모습을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다”며 “그동안 많은 선수를 봐왔지만 큰 경기 트라우마를 떨쳐내는 게 쉽지 않다. 올 가을에서도 내심 걱정했는데 (박)민우가 나도 놀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기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박)민우가 ‘감독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번에 꼭 우승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박)민우는 앞으로 정근우(34·한화)의 뒤를 이어서 국가대표 2루수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SK 가고시마 유망주캠프에선 1989년생 동기들이 ‘차기 대세’를 노리고 있다. 대표로 2012년 함께 입단한 포수 김민식, 내야수 최정민, 외야수 한동민, 투수 문승원(왼쪽부터). 사진제공 | SK아이브스

포수 김민식, 내야수 최정민, 투수 문승원, 외야수 한동민·조용호 1989년생 SK 5총사, ‘차기 대세’ 꿈꾸다

올시즌 1군 백업멤버로 존재감 과시 서로 배우고 경쟁하고 도움주는 절친

SK는 세대교체가 더뎠던 팀 중 하나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3회 우승(2007·2008·2010)을 한 주역들이 계속 팀을 지켜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팀들이 겪는 일반적인 후유증이었다.

이후 의도적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그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다. SK의 가고시마 유망주캠프엔 총 5명의 1989년생 선수들이 있다. 올해 1군에서 백업멤버로 존재감을 보여준 포수 김민식과 내야수 최정민, 그리고 선발로 가능성을 보인 투수 문승원에 상무에서 전역한 외야수 한동민이 있다. 여기에 2014년 육성선수로 입단해 올해 2군에서 두각을 드러낸 외야수 조용호까지, 89년생 동기 5명은 ‘차기 대세’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5명 모두 대표로 문승원(1라운드·고려대) 김민식(2라운드·원광대) 최정민(5라운드·동아대) 한동민(9라운드·경성대)은 2012년 신인드래프트 입단 동기다. 조용호(단국대)는 드래프트 미지명의 아픔을 딛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새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하는 ‘경쟁자’ 입장이지만, ‘동기’만큼 든든한 동료도 없다. 군입대 전 동기들 중 가장 많은 1군 경험을 한 한동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에 SK에 입단한 89년생 동기들이 많았다. 신인 때부터 다같이 열심히 해왔는데 올 시즌에 친구들 모두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 계속 다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팀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김민식과 최정민은 마산중~마산고 동기동창에 2013년 함께 상무에 입대한 ‘절친’이다. 최정민은 “민식이랑은 어릴 때부터 꼭 같이 야구를 하고 있고, 동민이도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조용호

“아무래도 동기들이 많아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며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기 어려운 말도 선뜻 던지고 할 수 있어 좋다. 신인 때부터 같이 해온 만큼, 서로 장점도 배우고 경쟁도 하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김민식은 1군 경험과 함께 어느덧 올라간 위치가 실감이 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캠프에 오면 우리가 항상 막내인데 이번 캠프에선 중견감이더라. 다른 군대도 다녀왔고, 이렇게 함께 야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하고 든든하다”고 밝혔다.

문승원과 조용호는 서울 지역 라이벌이었다. 문승원은 가동초-배명중-배명고, 조용호는 성동초-잠신중-아탑고를 나왔다. 최근 SK 대표로 대만 윈터리그에 차출된 조용호는 “승원이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라이벌학교에서 경기를 했다. 다른 동기들도 대학 때 많이 경기를 해 프로에 오기 전부터 친했다. 모두 마

우씨가 착한 친구들인데 동기들이 팀 주축이 돼 SK가 더욱 강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소 지었다. 문승원은 “어릴 때 알던 친구들을 프로에서 만났는데 동갑이보다니 다들 금세 친해졌다. 훈련 이후에 숙소에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고민상담도 해주곤 한다. 휴식일에도 밖에서 밥도 같이 사 먹으며 서로 ‘힐링’을 하는 사이”라며 동기들을 지켜세웠다.

이병노 기자 nirvana@donga.com

최형우, 은퇴선수협회 선정 ‘2016 최고의 선수상’

김태균 타자상·장원준 투수상 신재영 신인상...12월8일 시상

최형우(33·FA)가 은퇴 선수들에게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사)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한은회·회장 이순철)는 23일 은퇴 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2016 최고의 선수상’ 수상자로 최형우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12월8일 서울 양재동 L-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되는 ‘2016 레전드 야구존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최형우는 올 시즌 삼성 소속으로 타율 0.376(519타수 195안타)에 31홈런, 144타점, 195안타, OPS 1.115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한 시즌을 장식했다. 타

율 1위, 타점 1위, 최다안타 1위, OPS 1위 등 공격 전 부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선택을 받았다.

‘최고의 타자상’은 타격 전 부문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출루율(0.475) 부분 1위에 오른 김태균(한화), ‘최고의 투수상’은 방어율(3.32) 2위, 다승(15승) 3위를 차지하며 소속팀을 한국시리즈 2연패로 이끈 장원준(두산), ‘최고의 신인상’은 15승을 거둔 신재영(넥센)이 선정됐다. 한은회는 아울러 대한민국 최초의 등구장 ‘고척 스카이돔’의 탄생과 프로야구단(넥센 히어로즈) 입성에 도움을 준 박원순 서울시장과 ‘야구를 통한 사랑 나눔’을 실천 중인 이만수 헬코아 윤대이선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유지환 대표

한국스포츠신문협회장에 스포츠서울 유지환 대표

한국스포츠신문협회는 23일 발행인 정기총회를 열고 스포츠서울 유지환 대표를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스포츠신문협회는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4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산하에 편집협의회, 광고협의회, 경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